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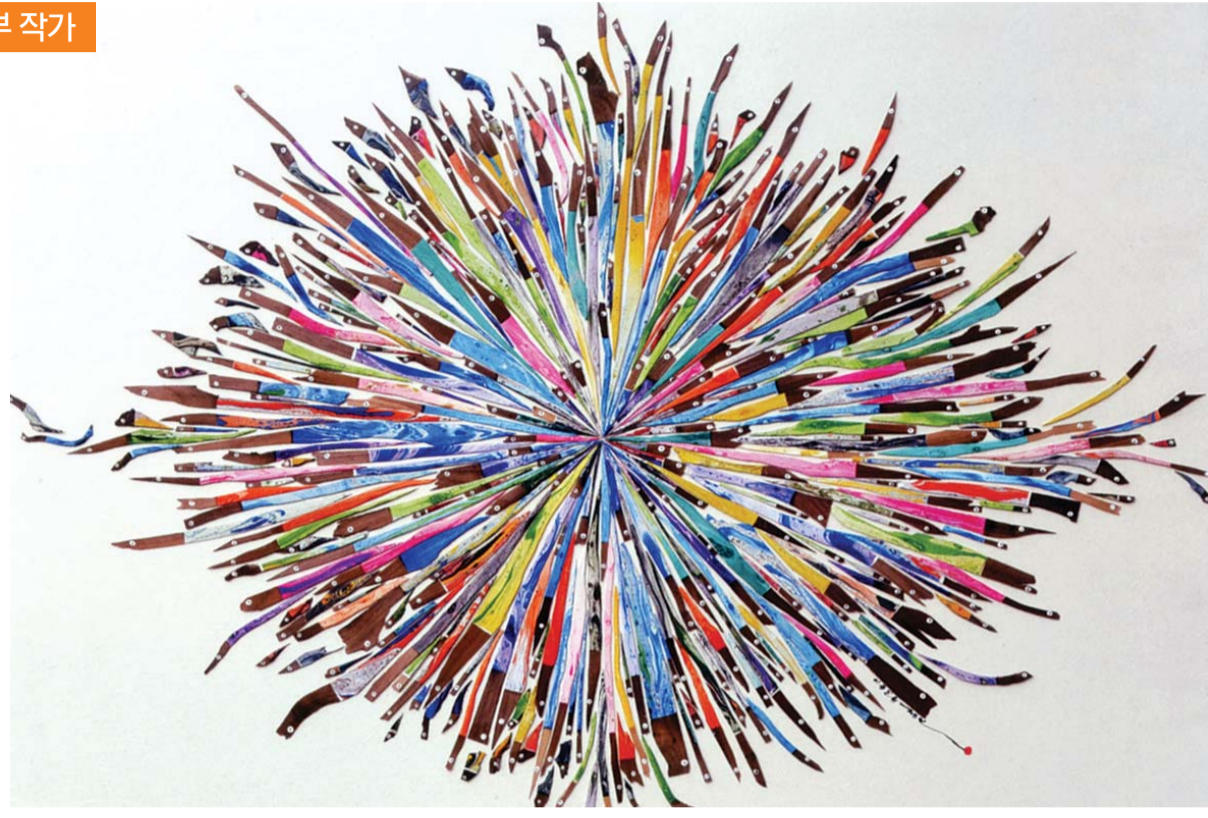
“따뜻한 나무 물고기 이야기 들어 보세요”

광주서 '행복한 동행' 전 여는 이정인·이재은 부부 작가

난치병 판정 받고 강원도 화천에 등지 폐목·페마네킹 등 소재로 다양한 작업 12일까지 문예회관...70여점 선 보여 가평 심혜진 자택서 오픈 갤러리 운영



‘행복한 동행’ 전을 여는 이정인·이재은 부부.



폐목을 활용한 수백개의 나무를 붙인 이정인 작 '오색물고기'

서울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이정인 작가는 지난 2002년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았다. 도시를 떠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던 그는 아내 이재은 작가와 함께 강원도 화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후 산천어 축제에 유명한 화천 폐목에 등지를 틈 그는 자연스레 '물고기 이야기'에 주목했고 산천어, 북어 등 물고기를 소재로 한 작업을 시작했다. 함께 작품활동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우는 부부의 삶은 KBS '인간극장' 등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정인·이재은 작가는 오는 12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행복한 동행' (6월12일까지) 전을 열고 있다. 광주에서 처음 작품을 선보이는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70여점의 작품을 골라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이정인 작가의 작품은 얼핏 평면회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 앞에 다가가, 나무로 만든 0.5mm~1cm 크기의 수천마리 산천어가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또 나무 굽비 한마리와 새끼줄, 푸짐한 밥 한그릇이 어우러진 '자린고비' 시리즈는 유쾌한 기분이 들게한다.

서울시립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정인 작가는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바닷가를 찾아다니며 폐목을 수집하고, 그 폐목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다.

“버려진 나무도 이전엔 나무의 쓸모가 있었죠. 모두 제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모진 바람이 불어 꺾이거나 부러져 세상을 떠돌며 경험하고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나무를 이용해 작품을 만듭니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나무의 친근함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제 작품엔 물고기가 때로 등장합니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 때로 움직이는데 나약하고 힘 없는 것들도 모이면 큰 에너지가 되지요.”

원목가구 제작자 하고 있는 이정인 작가는 가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호두나무를 얇게 썰어서 작품에 활용하기도 한다.

중앙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재은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작업한다. 페마네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슈퍼 히어로, 화려한 색채로 표현된 아이들의 모습 등도 주 작업 소재다. 특히 그릇에 넘칠 정도로 수북하게 담긴 '밥'은 두 사람의 작품에 동시에 등장한다.

“제가 아내이고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

켜나가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남아서 푸짐한 밥을 그렸죠. 밥은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저에게는 밥 자체가 '히어로'입니다.”

이재은 작가는 또 이번 전시에서 페마네킹에 화려한 색깔의 새로운 문양을 얹어 내적 아름다움을 표출한 시리즈 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수국 등 화려한 꽃과 함께 등장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영화배우 심혜진의 경기도 가평 자택에서 작업활동을 한다는 사실로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전시할 작품을 고르기 위해 두 사람의 화천 화실을 방문했던 심혜진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곳을 갤러리와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두 사람은 건물을 하우스 갤러리로 꾸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업실도 관람객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자선 나눔전

4일~7월 1일 전대병원 갤러리 회원 작품 30만원 균일가 판매

지역 여성 작가들이 그림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눈다.

‘광주·전남 여성작가회(회장 함영순)’가 자선 나눔전 ‘아름다운 사랑-희망의 빛’을 연다.

전남대학교병원 갤러리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열리며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다.

광주·전남 여성작가회는 지난 1982년 출범했다. 임막임, 강숙자, 정송규, 곽충심, 이정주, 조옥순 등 11명의 회원이 남경화랑 기획 초청전으로 ‘광주 여류화가 회전’을 연 게 그 출발이다. 이후 서양화 작가 중심에서 조소, 공예, 등 영역을 확장하고 광주 뿐 아니라 전남에서 활동한

작가까지 영입해 ‘광주전남 여성 작가회’로 이름을 바꾸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34회의 정기전과 19회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국 여류 화가 초대전, 현대미술 워크숍, 100호 대작전, 자선 바자회전 등을 열면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고문을 맡고 있는 강숙자·고정희·최강희 작가를 비롯해 함영순·강은주·고은숙·기옥란·이영실·변경심·선현옥·이정주·정선·주희희 작가 등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정물화, 풍경화 등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은 모두 30만원 균일가로 판매되며, 수익금의 일부를 전남대 병원 환우 돕기 및 취약여성 돕기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오픈 행사는 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영순 작 '향기'

광주여성재단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 교육생 모집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강연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재단 내 8층 강의실에서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를 추진할 전문가들을 배

출하는 교육사업이다.

배출된 컨설턴트들은 광주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의 가족친화경영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과 직장교육 등에 투입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여성재단은 '가족친화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 '가족친화 인증제 소개', '광주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및 광주 소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등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다.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2. /전은재 기자 ej6621@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카페 338'에 어린왕자 조형물 설치

어린왕자 조형물이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카페 338'에 설치됐다. <사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사업단은 홀로그램극장 인기 콘텐츠 '어린왕자의 선물'의 캐릭터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형물 설치에 대원사·생텍쥐페리 재단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념품도 판매한다.

조형물은 '어린왕자'에 나오는 6개 행성들과 그 별에 사는 사람들(왕, 허영쟁이, 주정뱅이, 사입자, 점등원, 지리학자), 바오밥 나무, 보아뱀 꼬리, 철새와 어린왕자, 양

상자 등이다. 카페338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관람객들은 홀로그램 극장에서 어린왕자 홀로그램 공연을 관람한 후, 어린왕자 캐릭터를 활용한 아트펜시문구 등 다채로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어린왕자의 선물'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이 '어린왕자'를 홀로그램 방식으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상영시간은 30분이다. 문의 062-670-7453-4, 7495.박성천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